

유동자산 2조 원·매출 1조 원 넘는 회사가 휴업수당 깎아달라 졸라

‘기준미달 휴업급여 저지’ 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열어 ... 울산지노위 ‘휴업수당 전액 지급하라’

금속노조가 법률로 보장한 휴업수당마저 깎아달라 졸리는 현대중공업과 고강알루미늄 자본의 시도를 막아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아래 울산지노위)가 현대중공업과 고강알루미늄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건을 기각했다.

노조는 10월 18일 울산지노위 앞에서 ‘노조탄압, 구조조정 박살, 기준미달 휴업급여 저지, 현대중공업고강알루미늄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영남권 조합원들과 조선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해양사업부 소속 1,2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업 승인을 신청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투쟁하자 휴업수당을 40%만 주겠다고 울산지노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고강알루미늄은 조합원들에게 휴업수당을 30%만 지급하겠다고 울산지노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울산지노위는 18일 14시부터 두 회사가 요청한 안전을 심의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노조는 울산지노위에 현대중공업의 유동자산이 2조 원이 넘고, 고강알루미늄의 모기업인 알루코그룹은 매출 1조 원에 수익률이



동종 업체 평균 이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충분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 사회 노사관계는 여전히 전쟁 상황이다. 어느 사업장 자본도 신청한 적 없는 단서조항을 이용해 현대중공업이 휴업수당을 40%만 주려고 한다”라며 “현대중공업과 고강알루미늄에서 선례가 생기면 다른 사업장에서 피해 노동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정부와 자본이 제도를 바꾸며 노동자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금속노조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도를 막겠다”라며 “돈 몇 푼이 깎는 게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삶의 기준을 낮추는 결정이다. 울산지노위가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와 노조가 좋은 관계를 맺기 힘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강수열 노조 울산지부장은 “회사 전체는 돌아가는데 사업부가 어렵다고 자본 마음대로 휴업하고, 휴업수당은 자본 마음대로 깎

으려고 시도한다. 알아서 나가라는 뜻 아니겠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 조합원들은 회사가 정리해고와 노조과파를 위해 법으로 정한 휴업급여마저 주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강태희 고강알루미늄지회장은 “알루코그룹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휴업급여를 못 주겠다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결정을 노동위원회가 받으면 앞으로 쟁의 중인 사업장에서 똑같이 악용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은 “노동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 선박 수주를 요청하고, 조합원 고용 유지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데 회사는 노동자 뒤통수치고 휴업급여마저 깎겠다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태 지부장은 “정몽준 총수 일가는 수조 원의 돈을 챙겼는데, 노동자는 기본도 안 되는 생계비를 주겠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회사가 기본을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과 고강알루미늄지회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울산지노위에서 농성하며 심판결과를 기다렸다.

울산지노위는 심의를 거쳐 현대중공업과 고강알루미늄이 휴업수당을 줄여 지급할 만큼 경영위기를 겪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유시영 회장, 기회 줄 때 교섭 나와라”

유성기업 노조파괴 8년, 마침표 찍는 농성 ... “유시영 회장 직접 나올 때까지 버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가 8년째 계속되는 노조파괴를 끝내겠다고 ‘마지막 투쟁’을 벌이고 있다. 두 지회는 유시영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하며 유성기업 서울사무소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10월 15일, 교섭 대표인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 김정태 대전충북지부장, 정용재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과 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를 점거하고 유시영 회장에게 직접 대화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유시영 회장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 아산과 영동지회는 15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전 조합원이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농성장을 방문해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 결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격려했다.

두 지회는 농성에 들어가며 “8년째 계속되고 있는 노조파괴 사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정권 없는 노무대표이사와의 별다른 교섭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유시영 회장이 직접 결사해지 정신으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두 지회는 지난 8년간 82차례 교섭을 벌였다. 회사는 ‘어용노조와는 신속히 타결하고 금속노조 교섭은 공전시키라’라는 창조 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교섭을 회피했다. 지난 1월, 3년여 만에 겨우 교섭을 재개했지만, 회사는 ‘노조 요구는 교섭안이 될 수 없다’라며 계속 교섭을 거부했다.

총파업을 벌이고 상경한 유성기업 아산과 영동지회 조합원들은 농성 2일째인 10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 권고에 따

른 노조파괴 사태 사과와 재조사 ▲유시영 회장과 책임 있는 직접 교섭 추진 등을 요구했다.

두 지회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항의·규탄대회를 열고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농성 3일째인 10월 17일에 2011년 직장폐쇄와 어용노조 설립을 지시하며 노조파괴를 주도한 현대차 자본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10월 18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북본부가 연대투쟁에 나섰다. 두 지역본부는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이제는 끝장내자. 세종충남, 충북본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지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노조파괴 사태를 풀기 원한다. 부당노동행위로 다시 교도소에 갈 처지인 유시영 회장은 노조가 주는 마지막 대화와 타협이라는 선물을 거부하지 말라. 유시영 회장은 같이 죽을지 같이 살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양재동 가이드라인 반드시 넘는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사 지부·지회 결의대회 열어... “윤여철은 결단하라. 계열사 자율교섭 보장하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그룹사 지부·지회 조합원들이 양재동 본사 앞을 가득 메우고 ‘본사가 가이드라인 철폐와 계열사 자율교섭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 그룹사 조합원들은 계열사 사관계에 개입해 자율교섭을 막고 있는 윤여철 부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사 지부·지회들이 10월 19일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가이드라인 분쇄, 계열사 자율교섭 쟁취, 윤여철 부회장 OUT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룹사 지부·지회들은 양재동 본사 가이드라인으로 법이 보장한 자율교섭이 침해받고, 현대차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내도 임금은 줄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와 경남지부 현대비앤지스틸지회, 포항지부 현대종합특수강지회는 그룹 본사 가이드라인에 막혀 올해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

는 가이드라인 분쇄 투쟁을 암호할 것이다. 이제 현대차그룹과 윤여철이 결단해서 계열사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박한수 가이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왜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분배받지 못하는가. 모든 임단협 마다결 사업장이 승리할 때까지 가이자동차지는 함께 연대하겠다”라고 약속했다.